

건강정보

- 건강문제
- 치료방법
- 검사방법
- 생활습관 관리

심뇌혈관질환정보

약품/식품정보

장애/재활정보

희귀질환정보

암정보

응급상황정보

해외감염병정보

정신건강정보

질분비물

요약문

등록일자 : 2021-04-20 업데이트 : 2025-03-19 조회 : 32016 정보신청 : 87

요약문

'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'

- 정상 질 분비물은 투명하거나 흰색이며 냄새가 없고, 배란기에 양이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
- 병적인 질 분비물은 색이 탁하고 악취, 가려움, 통증 등을 동반하며 세균성 질염, 칸디다 외음부질염,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질염의 원인은 감염, 정상 세균총의 변화, 여성호르몬 감소 등이며, 특정 환경(젖은 질 세척, 면역 저하 등)에서 더 쉽게 발생합니다.
- 치료 방법으로는 원인에 따라 항생제, 항진균제, 여성호르몬 요법 등을 사용하며,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예방 및 자가 관리를 위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,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며, 과도한 질 세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개요

질 분비물은 일반적으로 '냉'이라고 부르며, 사람마다 분비물의 양에 차이는 있지만 가임기 여성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. 그런데 병적인 질 분비물이 생기면 증상이 발생하며, 건강행태 개선 및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.

개요-정의

정상 질 분비물은 투명 혹은 흰색으로 냄새가 없고, 배란기에 양이 증가합니다. 이는 연령, 생리주기, 여성호르몬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차가 있습니다. 병적인 질 분비물은 양이 많아지고, 색이 진회색 혹은 황녹색으로 탁해지고, 악취 및 가려운 증상, 소변 볼 때 통증, 화끈거림 등을 동반하며 보통 질염에 의해 유발됩니다.

개요-종류

병적인 질 분비물의 대표적 원인인 질염에는 세균성 질염, 칸디다 질염,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이 있고, 원인균이 있는 질 분비물은 아니지만 여성호르몬 감소로 인한 위축성 질염이 있습니다.

개요-원인

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질과 자궁경부의 분비샘에서 분비되며, 생리주기 및 여성호르몬 등에 따라 상태가 조금씩 변합니다. 한편, 병적인 질 분비물은 감염 및 정상 세균총의 변화, 여성호르몬 감소 등이 원인이 됩니다.

1. 감염 및 정상 세균총의 변화

① 세균성 질염 - 정상 질 세균총의 변화, 젖산균의 감소와 비호기성균의 과증식으로 발생합니다. 젖은 질 세척 및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알칼리성의 정액으로 인해 질의 산도가 알칼리화되면서 발생합니다.

② 칸디다 외음부질염 - 90%는 칸디다 알비칸스 진균이 원인입니다. 당뇨나 스테로이드 사용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경우, 장기간 항생제 사용, 임신 및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.

③ 트리코모나스 질염 - 트리코모나스는 꼬리를 가진 단세포 질편모충으로 대부분 성관계에 의해 감염됩니다.

2. 여성호르몬 감소

자연 폐경 혹은 항암치료나 양측 난소절제술을 받아 폐경된 여성에서 여성호르몬이 감소하여 위축성 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. 그 외

간혹 소아에서 질내 이물질로 피가 섞인 질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호흡기나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질 분비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성인은 생식기 암이 비정상 질 분비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

<그림 질 분비물의 원인>



개요-경과 및 예후

1. 세균성 질염 - 비교적 잘 치료되지만 임신 중에는 조산 등 임신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, 만성 재발성 세균성 질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. 간혹 골반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

2. 칸디다 외음부질염 - 만성 재발성 칸디다 외음부질염이 발생하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.

3. 트리코모나스 질염 - 요로감염이 동반될 수 있고 임신 중에는 임신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다른性病(성매개감염병)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.

4. 위축성 질염 - 여성호르몬 투여로 보통 1~2주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나 여성호르몬이 낮은 상태에서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.

## 진단 및 검사

상담, 진찰, 아래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진단합니다

1. 질 분비물의 양상과 증상 2. 질과 외음부, 자궁경부 진찰 3. 질 산도 측정, 질 분비물의 현미경검사, 휘프검사, 그람염색검사, 핵산증폭(PCR) 검사, 균배양 검사

1) 세균성 질염

① 질 벽에 회색의 탁한 분비물 ② 질 내 산도 4.5 이상 ③ 질 분비물 현미경 검사에서 클루세포(Clue cell) 20% 이상 ④ 휘프 검사(Whiff test) 양성(질 분비물에 10% 수산화칼륨(KOH)을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생선 냄새가 나면 양성). 이 중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, 세균성 질염으로 진단합니다.

2) 칸디다 외음부질염

백뇨통, 외음부 가려움증 등의 증상과 하얀 치즈나 휴지 같은 백색의 질 분비물이 관찰되면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. 질 분비물을 얇게 퍼바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군사나 칸디다 진균이 발견되면 칸디다성 외음부질염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.

3) 트리코모나스 질염

거품이 나는 황록색의 질 분비물이 다량 나오며 소변 볼 때 통증, 아랫배 통증이 있습니다. 질 점막이 붓고 질과 자궁경부에서 딸기처럼 빨간 반점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. 질 분비물 도말검사에서 백혈구 증가와 함께 움직이는 편모를 가진 원충이 확인되면 확진합니다.

4) 위축성 질염

여성호르몬이 감소된 상태로 질점막이 창백하고 주름이 감소되고 위축되어 있으며, 질 내 산도는 5~7 정도로 증가되어 있습니다.

## 치료

1. 세균성 질염 - 메트로니다졸 겔이나 경구약, 항생제 복용으로 비교적 치료가 잘 되지만 만성 재발성 세균성질염이 발생하는 경우,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.

2. 칸디다 외음부질염 - 아졸 계열 항진균제 질정 혹은 질크림으로 치료가 잘 되고 경구 항진균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만성 재발성 칸디다 외음부질염이 발생하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.

3. 트리코모나스 질염 -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로 치료합니다. 기타 성병(성매개감염병)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.

4. 위축성 질염 - 여성호르몬 질정이나 크림을 사용하면 보통 1~2주 이내에 증상이 좋아집니다.

## 자가 관리

칸디다 외음부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꼭 끼는 옷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. 세균성 질염과 감염성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##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

병적인 질 분비물의 양상과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## 자주하는 질문

**Q.** 질 분비물이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. 이상이 있는 건가요?

**A.**

건강한 여성의 자궁과 질에서는 정상적으로 투명하고 냄새가 없는 분비물이 나옵니다. 이러한 질 분비물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으로, 개인의 여성호르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생리주기에 따라 분비물의 양과 성질이 변합니다. 질염에 의한 질 분비물은 점액성이 없고, 맑지 않으며,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, 외음부 증상과 배뇨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.

**Q.** 미취학 어린이의 속옷에 질 분비물이 묻어나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**A.**

어린이도 정상적으로 질 분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일시적이거나 아이가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지켜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속옷에 묻은 분비물이 진한 색이거나 황색인 경우, 질 부위를 자주 만지거나 가려움 등을 호소하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**Q.**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?

**A.**

질 내에는 질로 침입하는 외부 미생물을 방어하는 정상균주가 있어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. 이런 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질 내의 감염에 대해 1차적으로 자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알칼리성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너무 잦은 세척을 하게 되면 정상균주를 사라지게 하고 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미생물의 침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꼭 끼는 옷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
## 참고문헌

1. 김정구, 최훈, 대한산부인과학회 (2012). 부인과 내분비학 (제7판). 군자출판사.

2. Kimberly A. , Laura H. , ... , & Workowski, MD. (2021).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Treatment Guidelines, 2021. MMWR Recomm Rep 2021;70(4). 65-80.

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**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**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☰ 목록

[개인정보처리방침](#)

[개인정보이용안내](#)

[저작권정책 및 웹접근성](#)

[ 28159 ]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 
문의사항: 02-2030-6602 (평일 9:00~17:00, 12:00~13:00 제외) / 관리자 이메일 : nhis@korea.kr  
COPYRIGHT © 2024 질병관리청. ALL RIGHT RESERVED

[해외기관](#)

[유관기관](#)

[정부기관](#)

※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